차세대 주상복합 아파트 나온다

관리비·실내환기 등 단점 보완
배치·설계·시스템 업그레이드
가구당 5.6㎡ 서비스 면적 제공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삼성물산은 광진구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4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2개 동 전용 59~102㎡ 아파트 264가구와 전용 31~65㎡ 오피스텔 55실로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는 전용 84㎡(109가구), 102㎡(20가구) 총 1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는 상품 컨셉을 S · M · A · R · T로 잡고 있다. 이는 ▲에너지절약 ▲커뮤니티서비스 ▲복합시설 ▲관리비절감 ▲첨단보안 등으로 주상복합의 아파트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품에 녹여낼 예정이다.

우선 단지는 래미안의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 적용된다. 에너지 사용 목표량 및 동일 주택형과 비교해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래미안 능동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이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도 차별화했다.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면적은 총 1484㎡로 가구당 약 5.6㎡의 면적이 주어진다. 이는 법정 기준의 2배가 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단지 내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한 것도 특징이다. 이 단지는 중앙에 있는 광장 주위로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위로 최고 29층의 건물이 마주보듯 올라간다.

기존의 주상복합의 단점으로 인식됐던 실내 환기 부분 등을 보완하고 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돋보인다.

일례로 일반적인 부분개폐방식의 주상복합 창호가 아닌 아파트형 슬라이딩 창호를 적용해 통풍 및 채광 효과를 높였다. 특히 59㎡, 84㎡A, 102㎡ 등의 주택형은 판상형으로 설계해 맞통풍이 가능하게 했다.

보안성도 뛰어나다.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의 거실에는 터치로 조절되는 10인치 스마트 매니저 하스가 설치돼 외부인 침입 감지시 거실에서 영상을 자동으로 녹화하는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한다.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분양관계자는 "기존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적 받았던 부분을 고치기 위해 단지 배치부터 설계, 적용 시스템까지 다방면으로 고심했다"며 "내부의 인테리어도 엔지니어링스톤 및 고광택 가구 등의 고급스러운 마감자재를 사용할 계획으로 주상복합의 고급스러움과 실속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차별화된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서울도심 1만1068 가구 공급

가락시영 · 답십리 18 구역 등 8 곳 분양
재개발 · 재건축 단지로 수요자 관심 클 듯

삼성물산이 하반기에 1만1068가구를 공급한다. 삼성물산은 하반기 서울에서만 8곳, 1만1068가구(일반분양 282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측은 "올해 공급할 전체 단지가 재개발 · 재건축 단지로, 좋은 입지에 분양성공을 거뒀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택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남권에서는 ▲가락시영 (6월, 3804가구, 삼성물산 시공분) ▲서초 우성2차(10월, 593가구) ▲사당1구역(10월, 659가구) 등 기존부터 관심을 받았던 재건축 단지들이 포진돼 있다.

우선 강남권과 가까운 광진구 구의1구역(8월, 854가구) 단독주택 재건축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강남권 등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에서는 재개발 대단지들이 돋보인다. ▲답십리 18구역(8월, 1009가구) ▲길음2구역(9월, 2258가구) ▲녹번1-2구역(11월, 1305가구) 등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들이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지역 내 핵심입지를 자랑하는 곳들이 많아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장전'과'래미안 서초 에스티지' 등은 작년 한해 고객들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며 "올해에도 래미안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 특화로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